

5·18신인문학상(동화) 심사평

본심에서 주로 논의된 작품은 <느티나무의 기억>과 <종이주먹밥>이었다. <느티나무의 기억>은 이백 살이 넘은 느티나무를 화자로 하여 오월을 이야기한다. 당시 계엄진압군으로 투입된 군인이 할아버지가 된 현재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할아버지 소속 분대가 전제수 어린이를 죽인 일로 현재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느티나무는 할아버지에게 ‘괜찮다’고 위로를 건넨다. 할아버지 역시 피해자라는 것이 이 작품이 보여주는 세계이다. 느티나무 화자와 어린피해자를 등장시키면서 꼼꼼하게 작품을 구성해 낸 힘이 좋았다. 그러나 ‘계엄군도 피해자’라는 이야기만으로는 어떤 울림을 주기는 약해 보인다.

<종이주먹밥>은 80년 오월 당시 단짝 친구를 잃은 송이 할머니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해서 송이와 송이 친구 미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송이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도 오월의 고통은 여전히 기억 속에 있다. 치매증세가 일어나면 계속 주먹밥을 만드는 행위가 그것을 보여준다. 그 행위는 39년이 지난 현재에도 오월 당시 상처가 전혀 치유되지 않았음을 은유한다. 여기에서 작가는 송이 친구 ‘미래’를 등장시킨다. 미래라는 이름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지은 이름이다. 고통스런 과거를 미래가 껴안아 줌으로써 현재의 치유를 완성한다는 비유가 된다. 미래는 송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냥 어른들 불러오고 싶었는데 못 그러겠더라. 붙잡는 것 같아서. 가버리라는 소리가 가지 말라는 소리 같았어. 그래서 안 갔어. 나 가면 너 울어버릴까 봐.”

치매증세로 주먹밥을 만들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작은 소리에도 무서움에 덜덜 떠는 할머니를 보여주기 싫어서 송이는 “가! 가버려!”라고 미래에게 소리 지른다. 그러나 미래는 끝내 곁에 남아서 송이와 함께 할머니를 껴안는다. ‘나 가면 너 울어버릴까 봐.’라는 미래의 말이 울림도 있고 함축하는 의미가 깊다.

이 작품은 많이 다뤄진 소재에다 도식적인 해결로 흐를 위험이 다분했지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고 간 점이 돋보인다. 또한 현재 아이들 시점에서 우리가 오월을 어떻게 껴안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려는 작가의 생각도 믿음직하다. 그런 점에서 <종이주먹밥>을 이번에 수상작으로 결정하기로 심사위원들은 합의했다.

오월을 다룬 문학이 피해자 위로나 가해자 징치를 넘어서길 바란다. 제도의 폭력이나 권력의 함정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이야기로 나아갔으면 한다. 더구나 우리 아이들 삶은 여전히 수많은 오월들이 짓누르고 있지 않은가. 내년에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기를 기대한다.

심사위원 임지형, 장주식.